

News

브레이크 없는 가계대출 4월 16兆 늘어 역대최대

파이낸셜뉴스

4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25.7조원으로 전달보다 16.1조원 증가. 관련 속보를 작성한 지난 2004년 이래 가장 크게 증가한 규모. 가계대출은 SKIET 공모주 청약 등을 위한 '빚투'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 청약증거금은 80조9000억원으로 일반 공모주 증거금 최대 기록

기업은행 대상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 열린다

디지털타임스

4월 24일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2개의 695억원, 219억원 규모의 디스커버리펀드에 환매 중단 시장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풀이

네이버 손잡는 대형 은행들...빅테크와 협업 본격화되나

뉴시스

우리은행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하반기 출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
신한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네이버부동산에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이 연동되도록 추진. 전세대출은 우량 여신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영리한 선택을 했다는 게 업계 평가

인행 증금리 대출 경쟁 달아오른다

서울경제

카카오뱅크는 자체 신용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를 최대 1.2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
케이뱅크 역시 사잇돌대출을 출시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 올해 하반기 토스뱅크도 출범 예정 중. 인터넷 뱅크의 대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승인

한국경제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분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이달 말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재개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미래에셋증권, 4년만에 발행어음업 진출...최대20조 조달 가능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최종인가를 결정하면서 10조원으로 국내 자기자본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은 최대 20조원 가까이 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업은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해 자금을 조달 가능.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아 수익 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병 인가... 통합법인 7월 1일 출범

머니S

금융위는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을 승인. 오는 7월 1일 양사의 통합 법인인 '신한라이프'가 총자산 70조 규모의 대형 생보사로 새롭게 탄생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지난 1분기에 각각 728억원, 1,0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83%, 81% 성장

美 호텔 리조트 사업 디폴트 후폭풍.. 미래에셋·NH증권 900억대 소송 휘말려

파이낸셜뉴스

호텔 건설을 위한 메자닌 대출 3000억원이 전액 손실로 확정되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내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자권을 상대로 900억원대 소송을 이달 말 제기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 등에 DIL(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에 대한 위험고지가 없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한편 증권사들은 DIL 조항이 담겨있다는 입장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